

전업주부 자기 시간 24분 30초 뿐

99.11.3

이경숙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이제 전업주부도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사회 속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다. 전업주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관찰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부가사 노동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여성단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전업주부의 사회적 위상은 턱없이 낮다. 그리고 너무 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최근 나온 한 조사는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비슷한 점이 많

아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 전업주부들, 특히 아기가 있는 주부들의 경우 육아 등 집안일 때문에 자기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최근 0-3세 아기를 키우고 있는 전국의 전업주부 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자아실현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4분30분초에 불과하다.

가사노동에는 평일 평균 11시간 20분, 주말에는 9시간 50분을 소비하고 있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 집안일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가사노동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기돌보기로 평균 4.7시간, 식사준비에도 평균 3.9시간, 청소(2시간), 빨래(2시간), 가정잡일(34분) 등이 그 다음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들은 우리의 하소연을 '배부른 소리'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투자를 하지 못한채 젊은 주부 시절을 보낸 여성들이 중년기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지는 상상이 필요없을 정도다.

육아책임을 백퍼센트 사회가 부담하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전업주부가 하루 5시간 이상을 자기 자신, 그리고 사회공동체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양질의 여성인력을 양성해 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이 아니겠는가?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독자의견에 대해서는 도서출판 여성신문사에서 발행한 책 중 1권을 보내드립니다. 의견을 보내 주실 때 반드시 주소, 연락처, 원하는 책 명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여성신문사가 발행한 책은 <그림에서 자라는 잡초> (누가 최고 스타인가) <되는 집안은 장맛도 달다> <꿈꾸는 정치 학트인 정치> <할머니 얘기 들어볼래> <사랑받는 악녀> <우리시대의 결혼이야기> <당신의 경쟁력, 자신 있습니까> <반쪽이의 육아일기> <사람을 살리는 먹을거리> <창업자금7만2천원> <자, 이제 여성시대엔터키를 치자> 등입니다.